

“김영선 해줘라 했다”... 윤 대통령-명태균 통화 공개 파장

민주당, 윤 대통령 육성 공개... “2022년재보궐 선거 국힘 공천 개입” “움직일 수 없는 증거·공소시효 충분 ... 추가로 공개할 녹취 상당수”

더불어민주당이 “2022년재보궐 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에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했다”며 윤 대통령의 육성을 공개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 31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받기 직전인 2022년 5월 9일 이뤄진 것이라며 윤 대통령과 명 씨 사이의 통화를 녹음한 파일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이튿날 공식 취임했다.

박 원내대표가 공개한 파일에는 “공관위(공천관리위원회)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건 김영선이 좀 해줘라 했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는 윤 대통령의 목소리가 담겼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이 움직일 수 없는 공천 개입의 증거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불법으로 공천에 개입했고, 헌정 질서를 흔드는 위중한 사안임을 증명하는 물증”이라며 “김경희 여사의 사죄와 활동 자제, 특별감찰관 임명 따위로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지만, 이는 명백히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강력한 심판만이 남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특히 공천개입 의혹 등을 입증할 물증을 앞으로 더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추가로 입수한 녹취가 상당량”이라며 “지금까지 확

인한 것 중에도 추가로 공개할 녹취가 상당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번에 입수한 녹취록을 토대로 여당을 향해서도 ‘김 여사 특검’ 수용을 더 강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회견에서 “이 부분은 김경희 특검법에 당연히 포함돼 수사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공소시효 문제는 없나’라는 기자들의 물음에 김 수석부대표는 “정당법 위반에 다른 범죄가 성립될 수도 있어서 공소시효는 충분하다”고 대답했다.

민주당은 2일 오후 개최하는 ‘김경희 국정농단 규탄 범국민대회’에도 당력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이 시점에 민주당이 윤 대통령 녹취를 공개한 것을 두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의 연관성을 거론하기도 한다.

조만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위증 교사 혐의의 1심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야권에 유리한 정치적 여론을 조성해 재판부에 부담을 주는 부수적 효과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그러나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재판부가 이런 문제로 판결에 영향을 받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녹취 파일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 “공천 관련 보고 받은 적 없고, 공천 지시한 적도 없다”

대통령실은 지난 31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당선인 시절인 2022년 6월 재보궐 선거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야당의 주장을 부인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당시 윤석열 당선인은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공천 관련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또 공천을 지시한 적도 없다”며 “당시 공천 결정권자는 이준석 당 대표,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당시 당은 제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전략공천으로 결정했다. 경남 창원외장 지역

구의 경우, 김영선 후보자가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였다”면서 “결과적으로 김 후보자가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됐다”고 밝혔다.

또 “당시 윤 당선인과 명태균 씨가 통화한 내용은 특별히 기억에 남을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고, 명 씨가 김영선 후보 공천을 계속 이야기하거나 그저 좋게 이야기한 것 뿐이다”며 “이준석 당시 당 대표는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최고위에서의 전략공천 결정은 문제가 없다고 자세히 설명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민주당에 ‘윤-명 통화’ 음성 파일 제공 인물은 누구?

“당 공익제보센터에 들어온 제보” 녹음 제공한 제보자 신원엔 함구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1일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이의 통화 녹음 음성 파일을 공개한 가운데 이 음성 파일을 민주당에 실제 제공한 인물이 누구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음성 파일을 윤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의 직접 증거라고 지목한 민주당은 “당에서 책임지고 진위를 확인했다”(박찬대 원내대표), “실무팀에서 철저하게 검증했다”(노종면 원내대변인)고 강조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의 명운이 걸린 일인 만큼, 당 차원에서 100% 확실하게 진위를 확인했다”며 합성 등 조작 가능성을 일축했다.

민주당이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재생한 녹음 파일은 두 개다.

17초 길이의 첫 녹음 파일에는 2022년 5월 9일 이뤄진 명씨와 윤 대통령의 전화 대화가 담겼다.

명씨가 이 통화 녹음본을 한 달여 뒤인 6월 15일 자신의 지인이 듣는 앞에서 재생했고, 이를 해당 지인 혹은 그 자리에 있던 제삼자가 녹음했다는 계 민

당 측의 설명이다.

통화를 녹음한 뒤 이를 재생한 것을 다시 녹음한 것인 만큼 음질이 다소 떨어진다.

여기에는 “공관위(공천관리위원회)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건 김영선이 좀 해줘라 했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하는 윤 대통령의 목소리가 들어있다.

두 번째 녹음 파일은 45초 분량이다. 명 씨가 윤 대통령과의 통화에 대해 재생을 마친 뒤, 해당 자리에 있던 지인에게 명씨가 자랑하듯이 부연 설명을 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당 공익제보센터에 들어온 제보로 확인한 것”이라는 공식 입장만 밝힌 채 이 녹음을 제공한 제보자 신원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다만 명씨가 윤 대통령과의 통화 녹음파일을 재생한 그 현장에 있던 사람이 민주당에 직접 제보했

다는 게 당 핵심 관계자의 설명이다.

음성 파일이 공개되자 대화에 등장하는 김 전 의원의 전 회계책임자인 강혜경 씨 혹은 민주당이 공익제보 보호 대상자 선정을 검토 중인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 등이 제보자가 아니겠느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다만 강씨 측 노영희 변호사 역시 “해당 녹취는 당 제보센터에 들어온 것”이라는 언급만 내놓았을 뿐 강씨의 제보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민주당의 다른 의원은 통화에서 “불법 여론조사 혐의로 검찰 수사 압박이 점점 커지는 명씨가 직접 제보했을 수도 있지 않나”라며 ‘명태균 직접 제보설’도 거론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제보자 신원과 관련, “지금은 공개하지 않을 것이고 신변 보호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尹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근간”... 정부, 전기료 추가 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1일 “소상공인들이 민생과 지역경제의 근간이자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소상공인 대회’에 참석해 “대한민국 경제의 힘은 바로 소상공인에게서 나온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하루빨리 경기 회복의 온기를 체감할 수 있도록 내년도 소상공인 전용 예산을 역대 최대인 5조900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은행이 협업해 내년에는 올해보다

2조 원 늘어난 14조 원의 신규 보증부 대출을 공급하고, 전환보증 대출 규모도 2배로 대폭 늘린 10조 원을 공급해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 완화에 더욱 힘을 쏟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부는 소상공인을 위해 내년 전기요금에 추가 지원키로 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영세 소상공인 90만명에게 전기요금 20만원을 이미 지원하는 것에 더해 추가로 5만원을 더 지원할 것”이라며 “또 내년에 68만명에게 2000억원 규모로 배달비도 신규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6-중-166833호] [광고]

허리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허리 디스크 협착증

미세현미경 수술
척추 내시경 수술
고주파 수핵 감압술
척추 유합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